

## I. 도입

이 연구는 1960년 중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과 중국은 항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피를 맺은 전투적 우의를 바탕으로 하는 혈맹관계였고,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은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동맹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북중우호조약은 군사동맹에 기반한 포괄적 동맹관계를 규정했다. 동맹조약 체결 이후, 1960년 초반 중소분쟁을 둘러싸고 북중관계 역사에서 가장 우호적인 시대를 맞이했으나, 1964년 11월 모스크바 혁명 기념행사 이후 북중동맹이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소접근과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북중동맹의 역사상 가장 긴장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 대하여 왕타이핑(王泰平)은 문화대혁명시기의 북중관계에 대하여 ‘1965년 이후의 한 시기 동안, 소련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더욱 곤란을 맞이하였다’고 평가한다.<sup>1</sup>

이 연구는 소련의 브레즈네프 신지도부의 등장에서 문화대혁명 초기를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동맹속에서 긴장이 증대되는 과정에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와 자료를 검토한다. 구소련의 기밀해제 문건을 이용하여 아시아 냉전사를 연구한 시모토마이(下斗米伸夫)<sup>2</sup>, 북중관계를 연구한 이종석, 중국측의 문건을 이용한 히라이와(平岩俊司), 로동신문의 분석과 문화대혁명시기의 홍위병의 문건을 발굴하고 해제한 호리타(堀田幸裕) 등의 연구를 검토한다.<sup>3</sup>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장엽의 회고록에는 중소 이데올로기 분쟁을 둘러싼 사회주의 국가들의 논쟁과 노선투쟁 등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sup>4</sup> 중국의 지도자이며 이론가 우렁시(吴冷

<sup>1</sup> 王泰平主编『中华人民共和国外交史(第三卷):1970-1978』(北京:世界知识出版社,1999年), 35쪽.

<sup>2</sup> 下斗米伸夫『アジア冷戦史』(東京:中央公論新社,2004년 9월).

<sup>3</sup> 이종석『조선노동당연구』(서울:역사비평사,1995년), 이종석『북한-중국관계:1945-2000』(중심,2000년), 平岩俊司『北朝鮮・中国關係の歴史的変遷とその構造』(慶応義塾大学博士論文,1999)에서는 안전보장, 이데올로기, 전통적 관계, 경제적 관계라는 4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堀田幸裕「文化大革命初期に発生した中朝關係の悪化について(1966-1970年を中心に)」『中国研究月報 No.658』(中国研究所,2002年).

<sup>4</sup> 황장엽『황장엽 회고록』(서울:시대정신,2006년), 황장엽『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

四)의 중소논쟁에 대한 회고록 ‘십년논전 (十年论战 1956-1966中苏关系回忆录)’에는 이 시기의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부의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협상내용의 일부가 게재되어 있다.<sup>5</sup> 한국통일부가 정리한 ‘독일지역 북한기밀문건집’<sup>6</sup>은 기밀 해제된 동독의 정보평가서를 한국통일부가 편집한 문건으로 당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입장에 대한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 ‘저우언라이 연보(周恩来年谱)’, 정창현이나 란코프<sup>7</sup>가 인터뷰한 소련 관계자의 정세보고서 및 인터뷰, 그리고 ‘조선중앙연감’, ‘중국의 조선·한국정책문건집’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sup>8</sup> 등을 이용한다.

이상의 자료와 관점을 중심으로 통시적 분석법에 따라서 논문을 구성한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중국의 협력과 긴장이 병존하는 역사적 배경과 1961년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체결 직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둘러싼 북한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북중협력과 북소갈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한다. 둘째, 우링시(吴冷四)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브레즈네프 신지도부의 등장 이후 북중지도부의 회담을 정리하고, 북한과 소련의 전략적 접근에 따른 중소간의 긴장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문화대혁명 초기에 북한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어 북중관계가 단절되는 과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1960년 중후반의 북한과 중국의 동맹내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긴장된 동맹의 함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

다] (한울, 1999년).

<sup>5</sup> 吴冷四 『十年论战 1956-1966中苏关系回忆录』 (中央文献出版社, 1999年).

<sup>6</sup> 통일연구원편집부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도서출판선인, 2006년).

<sup>7</sup>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5), 정창현 『북한현대사』 (민연, 2002년).

<sup>8</sup>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서 1994년 8월까지 중국의 한국·조선정책에 대한 공개된 문건, 자료 등 중국의 공식 역사에 부합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 II. 북중갈등의 역사적 배경: 협력과 긴장의 병존하는 구조

역사적으로 중국대륙과 한반도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표현된다. 조선인·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피를 나누는 우의’를 나누었다.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sup>9</sup> 한국전쟁 정전에서 1955년까지는 중국의 대북한 전후 복구지원을 매개로 하여 북한과 중국은 협력하고 있었고<sup>10</sup>, 한국전쟁을 통하여 친중계열의 연안계 파벌이 성장하면서 북한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되었다.

그러나 항일전쟁시기부터 조·중 공산주의운동에서 민족갈등이 내재해 있었고<sup>11</sup>,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만주파의 친중계열의 연안계에 대하여 견제하였고,<sup>12</sup> 1955년 12월, 김일성은 연안계의 마오쩌둥, 평더화이 등의 중국지도부와 막연한 사이였던 연안계의 박일우를 반당 종파행위의 혐의로 출당 조치했다.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하여 배격하는 과정에서 1955년 12월 28일 로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연설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파벌투쟁을 둘러싸고 북중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를 둘러싸고 동유럽과 같이 북한에서도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었다. 소련계와 연안계가 연합하여 개인승배문제를 둘러싸고 김일성에 대하여 도전을 한 것이다. 6월에서 7월, 김일성이 동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연안계)과 소련(소련계)을 배경으로 하는 반김일성 집단이 결성되어,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김일성 집단이 개인승배를 비판하며 당권에 도전했다. 그러나 최용건 등의 만주파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은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혐의로 숙청했다.<sup>13</sup> 북한 내부 권력투쟁에 대하여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은 미코얀 부수상과 평더화이 국방부장이 지도하는 중소공동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sup>14</sup> 9월, 중소공동대표단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전원회의가 열려서 8월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고, 숙청된 연안계와 소련계의 당적을 원상회복하였다.<sup>15</sup> 그러나 소련공산당의 중국, 북한, 헝가리와 폴란드 등의 형제국의 간섭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갈등이 고조

<sup>9</sup> 박종철 『演变中的中朝关系研究：走出血盟（1953年-1994年）』（北京：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2007年4月）.

<sup>10</sup> 박종철 「순망치한의 혈맹: 중국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31집』(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년 12월).

<sup>11</sup> 歐陽善著, 富坂聡編 『对北朝鮮・中国機密ファイル』 (동경: 文芸春秋, 2007년09월), 21쪽.

<sup>12</sup>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년), 242-246쪽.

<sup>13</sup>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앞의 책』, 218-220쪽.

<sup>14</sup>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앞의 책』, 231-137, 下斗舞信夫 저,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43, 정창현 『앞의 책』, 225-228쪽.

<sup>15</sup> 이종석(2000) 『앞의 책』, 214쪽.

되고 있었다. 소련과 중국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의 권력투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1956년 말부터 김일성은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이 강도높게 진행되었다.<sup>16</sup>

1957년 11월 모스크바의 각국 공산당대회에서 중소갈등을 배경으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중국의 종파사건 개입에 대하여 사과<sup>17</sup> 함으로써 양당·양국의 긴장은 봉합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요구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에도 마오쩌둥은 동의하였다.<sup>18</sup> 1957년 12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정치적인 자주를 선언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대국주의적, 배외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sup>19</sup> 중소갈등을 배경으로 김일성은 좀 더 자주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1958년 6월 14일, 로동신문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사설 ‘현대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를 게재했는데, 이종석은 소련공산당 노선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sup>20</sup> 1958년 11월에서 12월,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둘러싼 감사의 표시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에게 현대수정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반드시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투가리노프의 이 시기의 정세보고서에 의하면 ‘반혁명과의 투쟁을 목적으로 국내의 적대분자 및 파괴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5월까지의 시기에만 약 9만 명이 자수했고 1만 명이 사회안전부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한다.<sup>21</sup>

또한 이 시기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황장엽은 북한지도부가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 김일성은 중소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대하여 “우리도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의 도전에 맞서 국제공산주의 운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보려는 속셈으로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소부르주아적 조급성이라고 비웃었다. 후르시초프는 마오쩌둥이 방귀를 끼려다가 똥을 싸다고 비웃었다. 이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상이론 투쟁에 적극적이었다.

김일성은 두 대국간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선전했으며, 경제, 문화건설에도

<sup>16</sup> 이종석(2000) 『앞의 책』, 214쪽.

<sup>17</sup> 정창현 『앞의 책』, 232-233와 244-245쪽.

<sup>18</sup>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는 박종철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서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연구」 『군사사연구총서 제 5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년 3월).

<sup>19</sup> 下斗舞信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07쪽.

<sup>20</sup> 이종석(2000) 『앞의 책』, 218쪽.

<sup>21</sup> 투가리노프 소련외교부 극동국장 「조선 정세 보고서」, 정창현 『앞의 책』, 232-233쪽.

자주적인 노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sup>22</sup>

이런 투가리노프의 정세보고서나 황장엽의 회고록으로 볼 때 1956년의 소련공산당 20대에서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이 철군한 시기에 북한지도부는 중소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혹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소갈등상황에서 중소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자주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다.

소련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과 북한은 소련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수령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주의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흐루시초프를 비난하였다. 티베트문제에서 기인한 중인국경분쟁에서 소련이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소갈등은 격화되었고, 김일성은 내부적으로 조선공산당 이론서기실에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sup>23</sup> 1960년 1월, 항저우에서 마오쩌둥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중인변경문제에서 불거진 국경문제에 대하여 주변국들과 국경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sup>24</sup> 중국지도부는 3월 20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과의 우호협력과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우호동맹조약을 맺기로 결정하였다.<sup>25</sup>

1960년 5월 파리정상회담을 결렬을 둘러싸고 각국 공산당은 중소논쟁이 참여하게 되었다. 1960년 5월 19일, 마오쩌둥은 북경에 방문하고 있는 김일성을 항저우에 열리는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 초대하여 제 20대 이후 북중지도부가 처음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26</sup> 6월에 열린 부카레스트 회의에서부터 조선로동당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하였다. 특히 1960년 11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다원성이 승인된 모스크바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김일성은 1961년 각각 중국과 북중우호조약을, 소련과 북소우호조약을 체결하여 안전보장을 확인하였다. 북중동맹은 대국-소국 관계로서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비대칭 동맹’이다. 북한의 경우는 동맹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여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국의 목적은 중소분쟁에 따른 국경확정과 소련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961년 북한이 동시에 중국과 소련과 각각 우호조약을 체결한 시점은 중소관계가 적대적 관계이었다. 북한의 두 개의 우호조약체결이후 북중관계는 밀착되었지만, 북소간에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었다.

1960년대 북한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소련의 대북원조가 감소함에 따라서 북한 경제는 곤란을 맞이하였지만, 1964년에도 북한의 소련 비난은 강화되었다.

---

22 황장엽(2006) 『앞의 책』, 152-153쪽, 황장엽(1999) 『앞의 책』, 127-129쪽.

23 황장엽(1999) 『앞의 책』, 127쪽.

24 吳冷四 『앞의 책』, 236-259쪽.

25 『周恩來年譜1949-1976』(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7年), 295쪽, 중국은 주변국들과 1960년에 변계 조약이나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과는 1960년 5월 변계조약을 체결하고, 1년이 늦은 1961년 우호조약이 체결되었다.

26 『周恩來年譜1949-1976(中)』, 320-321쪽, 吳冷四 『앞의 책』 269-270쪽.

1964년 4월 19일 로동신문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저지시키자』라는 사실에서 중국공산당을 옹호하며 수정주의를 비난하였다. 6월 평양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 경제토론회에서도 소련 비난이 이루어졌다. 7월에는 저우언라이가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3차례의 회담을 가지며,<sup>27</sup>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북한과 중국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8월 케네디 정권은 톤킹만 사건을 일으키면 베트남에 대하여 노골적 개입을 하면서 동서 냉전은 격화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다. 8월 31일, 노동신문에 소련을 직접 겨냥한 비난 사실을 게재하고, 9월 7일 노동신문은 프다우다지에 실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천명한 평양경제선언” 비판에 대한 기사를 반박했다. 9월에는 김일성이 중국동북지구를 비공식 방문하였는데, 주로 조선족 등의 중국인 항일투쟁연고자들과 접견하였고, 하얼빈에서는 저우언라이와 회견을 하였다.<sup>28</sup> 9월 30일에서 10월 7일, 최용건이 이끄는 조선당정대표단이 중국건국 1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하였다.<sup>29</sup> 10월 15일 중국의 핵실험에 성공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으로 되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라고 중국의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sup>30</sup>

1964년 말엽부터 북한과 중국은 미묘한 갈등을 겪었다. 구동독의 정보보고서에 이 시기의 북중관계와 북한의 주체노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64년부터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과 분리과정을 겪고 있었고, 소련 공산당에 접근했다. 조선로동당은 ‘독자적인 조선의 지위’나 ‘주체사상’의 형태로서 민족주의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조선지도부는 쿠바, 베트남,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였다.”<sup>31</sup> 그리고 1965년 중소분쟁의 틈새에서 북한은 주체적 외교의 폭을 넓혀 비동맹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4월, 김일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회의 1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서 자주노선을

---

27 『周恩来年谱1949-1976(中)』, 658쪽.

28 김일성 「중국인항일투쟁연고자와 한 담화(1994년 5월 7일과 5월 30일)」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61쪽, 「비화발굴: 조선족 항일투사 이민(李敏)여사의 ‘60년만의 증언’」, (검색일, 2006년 10월 13일),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3/nd200003004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3/nd2000030040.html).

29 『周恩来年谱1949-1976(中)』, 674쪽. 10월 7일에 최용건이 이끄는 당정대표단은 마오쩌둥, 류샤오치, 동빠우, 주더, 덩샤오핑 등과 회담하였다.

<sup>30</sup> 『북한총람1945-1982』 (북한연구소, 1994년), 360쪽, 남찬순 『북미 핵협상과 동북아 질서 1990년대의 교훈』 (파주: 나남출판, 2007년), 116쪽. 중국은 1964년 10월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에게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

<sup>31</sup> 국제교류과 「B805/219 조선로동당 사절단과의 대담을 위한 참조사항」 (베를린: 1966년 12월),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190-191쪽.

천명했다.<sup>32</sup>

---

<sup>32</sup>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년), 110-111쪽, 이때 인도네시아 종합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 Ⅲ. 브레즈네프 신지도부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입장

#### 1. 소련 신지도부에 대한 김일성과 덩샤오핑의 회담

10월 14일, 소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흐루시초프(공산당 제1서기 및 수상)가 실각하면서 브레즈네프 서기장, 코시킨 (Alcksei Kosygin) 수상, 포드고르니 등이 권력을 장악하였다.<sup>33</sup> 10월 16일 흐루시초프의 실각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자, 중국지도부는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다. 소련 신지도부를 분석하는 중국지도부의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첫째, 수정주의를 벗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 둘째, 흐루시초프보다 더욱 나빠질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왜냐하면 흐루시초프주의는 이미 충분히 나쁘다. 더욱 나빠진다면 어디로 갈 것 인가.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파괴되어, 올 12월 흐루시초프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진영에서 중국을 삭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더 나빠진다면 외교관계의 단절, 중소동맹조약의 폐지의 선포, 혹은 전쟁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수정주의 노선을 지속하면서 방법과 책략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중간상태의 가능성이 높다. 15일 이후 서방 뉴스와 소련 신문의 반응을 볼 때, 마오쩌둥은 아직은 흐루시초프의 실각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보이지 않는다.’<sup>34</sup>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회의에서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을 평양에 파견하여, 김일성에게 소련 신지도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중소분쟁과 소련 신지도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10월 30일에서 31일, 덩샤오핑은 긴급하게 평양을 비밀 방문하여 김일성과 소련신지도부에 대하여 회담하였다. 먼저, 덩샤오핑은 양당 회담에서 김일성에게 흐루시초프의 실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견해와 몇 차례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토론한 소련의 신지도부에 대한 전망을 전달하였다. 덩샤오핑은 먼저 ‘중국공산당은 소련 신지도부에 대하여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소련 신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한 차례의 현장관찰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김일성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파견하는 것에 찬성했으니, 로동당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김일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김일성은 덩샤오핑에게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흐루시초프를 해임시켰냐? 비록 중앙전회를 브레즈네프가 주도하고, 이후 그가 제1서기로 당선됐다. 하지만 12일

<sup>33</sup> 下斗舞信夫 저,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53쪽. 소련의 신임지도부는 중국과 아시아 정책에 대하여 개선론과 신중론으로 대립하였다. 코시킨 총리는 개선론의 중심이 되었고, 안드로포프 서기는 마오쩌둥을 믿지 못한다며 신중론을 주장했다

<sup>34</sup> 吳冷四 『앞의 책』, 838쪽,

소련 주석단 회의 직전에 그는 베를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번 사건을 주도 했는지는 의심스럽다. 보고서도 브레즈네프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슬로프(Suslov, Mikhail Andreyevich)가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슬로프가 기획한 것이 아닐 까?’라고 의견을 내었다.

덩샤오핑은 ‘당연히 수슬로프가 주도하였지만, 그가 혼자서 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고 대답했다. 김일성은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주석단의 구성원의 한 명인 보 리얀스키(Polyansky)나, 혹은 코즐로프스키(Kozlowski)가 주동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덩샤오핑은 ‘우리가 7월 중순 중소양당회담 기간에 관찰한 것에 의하면, 수슬 로프는 서생티가 심하고, 발언을 할 때는 원고를 내놓고 읽었다. 우리가 질문을 하 면, 안도로포프(당시 대외연락부장)가 수슬로프에게 쪽지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했 다. 김일성은 브레즈네프와 몇 번 만 난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무표정하게 멍하 니 있고, 반응도 조금 느리고 말도 별로 없다. 현재 브레즈네프가 우두머리지만, 그 가 주요 기획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다. 덩샤오핑은 ‘브레즈네프는 1960년 모스크바 회의의 기초위원회와 중소양당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중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우렁시는 ‘1960년 81개당 회의 후 소련을 방문할 때, 나와 류샤오치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민스크, 이르크츠크까지 이동하며 브레즈네프(당시 최고 소비에트 주석)의 옆에 있었다. 당시 나는 류샤오치 동지와 동행하면서, 브레즈네프 를 관찰했는데, 그는 류샤오치 동지를 선생처럼 대하였다. 실제로 류샤오치 동지는 그보다 자격(혁명경력)이 많아서 그는 류샤오치 동지를 매우 존중했으며, 말도 적고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브레즈네프가 주동 적으로 흐루시초프를 해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단하기 어렵 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은 소련 국내문제에 대하여 ‘소련의 농업도 매우 어렵고, 공업도 혼란상태 에 있다. 귀국한 유학생들에 의하면, 인민들도 간부들도 불만이 많다고 한다. 공개 논쟁 이후, 소련은 피동적이었다. 흐루시초프도 피동적이었는데, 그것도 실각이 원 인이다.’라고 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흐루시초프의 해임에 대한 분석에 동의했으며, 해임은 국내적 원인도 국외적 원인도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은 ‘소련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중 국측이 분석한 3가지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중국과 같이 중간상태의 가능성이 가 장 높다고 본다. 소련신지도부는 변함없이 흐루시초프와 같이 할 것이다. 왜 흐루시 초프를 해임했는가? 만약 그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걷는다면, 흐루시초프 와 같은 편이다. 그래서 앞의 두 개의 가능성은 낮고,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했다. 김일성은 중소양당의 소식을 듣고, 정황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찬성한 다. 그리고 중공중앙의 의견을 직접 통보하기 위하여 조선을 직접 방문한 덩샤오핑 동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덩샤오핑 일행의 비밀방문의 임무가 매우 간단했으므로 두 번의 회담을 하고, 10월 31일, 비행기로 북경으로 귀국했다. 11월 1일, 상임위원회가 마오쩌둥 집에서 열렸는데, 회의는 가장 먼저 덩샤오핑이 상임위원회에 평양방문에 대하여 김일성의 의견이 중국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고했다.<sup>35</sup>

소련신지도부를 둘러싼 10월 30일에서 31일의 북중 양당의 회담내용으로 볼 때 김일성과 중국지도부의 소련지도부에 대한 견해는 거의 일치했으며, 북한과 중국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이 정하지는 않았다.

## 2. 러시아혁명 기념식에서의 중소관계의 파국

11월의 러시아혁명 기념행사 기간에 김일성은 중국과 북베트남에서 방문하였다. 베트남 방문에 앞서 11월 8일, 김일성은 북경을 경유하여 마오쩌둥과 한 차례 회견을 하였다. 이때 누가 흐루시초프를 사임시킨 것인지, 그리고 흐루시초프가 사임한 후 소련공산당이 어떻게 행동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향을 분석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만 있었고 명확한 의견을 낼 수 없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었다.<sup>36</sup>

11월 10일, 러시아혁명 47주년 기념행사에 북한과 중국 대표단은 각각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북한은 김일 제 1부수상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했으며, 김일은 브레즈네프 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와 코시킨 내각수상을 면담했다. 중국은 11월 5일에서 14일 저우언라이와 허룽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였다.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소련신지도부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sup>37</sup> 저우언라이는 흐루시초프의 비스탈린 노선을 개정하고, 그 상징인 소련 공산당 강령의 파기를 요구했다. 브레즈네프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관계의 파국은 연회석에서 마리노프스키 발언에서 발단이 되었다. 마리노

---

<sup>35</sup> 吳冷四『앞의 책』, 843-846쪽.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은 덩샤오핑을 단장으로 하여 평진, 대외연락부의 인원, 우렁시 등 이론가를 중심으로 평양으로 비밀 파견을 결정하였다. 중앙의 결정 이후, 당일 밤, 덩샤오핑은 신속하게 북한에 연락했다. 30일 오전, 덩샤오핑 일행은 비행기로 평양으로 가서, 오후 김일성과 회담을 했다. 그리고 10월 31일 오전, 다시 덩샤오핑과 김일성은 회담을 하고, 오후에 북경으로 돌아왔다. 11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덩샤오핑의 보고 후에, 저우언라이 총리는 이틀간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주중대사(북경)과의 면담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덩샤오핑이 조선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총리는 조선대사와는 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장 먼저 베트남 대사와 회견을 했고, 그 다음 루마니아 대사와 회견을 했다. 그들은 우리의 건의에 매우 찬성했다고 했다.

<sup>36</sup> 吳冷四『앞의 책』, 883쪽.

<sup>37</sup> 『周恩來年譜1949-1976(中)』, 684-688쪽, 『賀龍年譜』(北京:人民出版社, 1996年), 743-744쪽, 吳冷四『앞의 책』, 853-878쪽.

프스키 국방장관은 연회석에서 저우언라이에게 “우리들이 흐루시초프라는 낡은 신발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신이 마오쩌둥을 처치해야 한다”고 했다. 저우언라이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소련 체제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북경으로 귀국했다.<sup>38</sup>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중소간의 짧은 긴장완화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11월 14일, 중국지도부는 모스크바에서 급히 귀국한 대표단의 보고를 받고 소련신지도부에 대하여 “흐루시초프 없는 흐루시초프주의(Khrushchevism without Khrushchev)”로 규정하여 비판했다.<sup>39</sup>

### 3.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소련 신지도부에 대한 논의 (1964년 11월)

김일성은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다시 북경을 방문하여 11월 16일 중국지도부와 회담을 하였다. 러시아혁명 기념연회에서 마리노프스키의 도출 발언 때문에 중소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11월 8일과 11월 16일의 북경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김일성의 베트남체류기간에 중소관계는 갈등에서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1964년 11월의 김일성의 북경 방문 이후 5년간 김일성과 중국지도부의 회담은 중단되었다.

11월 16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평전 등의 중국지도부는 김일성과 회담하였다. 특히 소련 신지도부와 면담을 한 저우언라이가 모스크바 방문내용을 김일성에게 설명하고, 소련 신지도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저녁에는 마오쩌둥도 회담에 참가하였다.<sup>40</sup> 16일 오후 회담에서 김일성은 먼저 베트남의 방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틀 전, 베트남 외지(지방)에서 하노이로 돌아와서, 베트남 측의 초청에 의해서 베트남 정치국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법문동(范文同)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10월 혁명기념식의 경축상황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하였다. 법문동의 보고는 정치국토론을 거치지 않은 정리되지 않는 초보적 분석이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법문동의 보고는 소련 지도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내부는 혼란하고 사상은 일치하지 않고, 또 단결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문동은 소련 신지도부의 긍정적인 것도 보고했다. 소련 신지도부는 법문동에게 먼저 소련공산당은 몇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첫째, 소련당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과거처럼 공업당과 농업당으로 나누면 안

<sup>38</sup> 下斗舞信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53쪽. 마리노프스키는 보드카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허룽(贺龙)에게 소련에서 흐루시초프를 숙청한 것을 자랑하며, 중국도 마오쩌둥을 숙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통역은 놀라서 즉시 저우언라이에게 마리노프스키의 발언을 전달하고, 저우언라이는 즉각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음 날 새벽, 소련 정치국원들은 중국대표단의 숙소에서 면담을 위하여 기다렸다. 마리노프스키는 취중실언에 대하여 저우언라이에게 변명을 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중국에서는 취중에 마음속을 드러낸다면 바로 공항으로 향하였다.

<sup>39</sup> 이종석(2000) 『앞의 책』, 239쪽, 『周恩来年谱1949-1976(中)』, 684-688쪽.

<sup>40</sup> 『周恩来年谱1949-1976(中)』, 688쪽.

된다. 둘째, 바로 공개논쟁을 중단하고 중국공산당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중소 양당회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문동은 소련 지도부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김일성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호치민 주석은 김일성에게 중국공산당에게 3가지 의견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첫째, 공개논쟁을 계속 해야 되고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중단하면 안 된다. 둘째, 그들이 12월의 준비회의를 여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이 회의를 열기 전에 중소회담을 하고 일치한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회의는 분열회의가 될 것이다. 셋째, 아시아 형제당끼리 흐루시초프의 사임과 소련 신지도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말한 베트남 상황과 베트남 공산당의 3가지 의견을 들은 후, ‘현재의 소련 상황은 복잡하고 소련 신지도부의 동향도 모르고 누가 주요인물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서양신문은 지금의 소련 신지도부를 마차의 3마리의 말(삼두)로 비유했고, 그들은 브레즈네프, 코시킨, 그리고 미코얀이다’라고 했다.

마오쩌둥은 공개논쟁을 잠시 중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했다. 소련은 우리가 멈추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마오쩌둥 주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가 있고, 공개논쟁을 정지하겠다고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착오를 비판해야 할 때는 그냥 비판하고 우리는 이런 자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련이 말한 “단체조치(集体措施)”이란 형제당 회의에서 반중국 결의를 내리는 것이다.’

저우언라이는 ‘그들은 우리가 12월의 준비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속인다. 12월의 회담에서 그들은 12월 회의의 필요성을 말했고, 12월 회의의 날짜, 명칭, 구성원, 성질을 모두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 회의를 소련이 주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 형님당 (老子党, 여기서는 소련공산당에 대한 비하의 뜻)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마오쩌둥은 ‘현재의 상황은 그들이 사소한 일까지 흐루시초프처럼 할 것이고,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이번 회담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소양당회담은 소련 측이 원래 5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10월에 열려고 했는데 그들은 좀 늦다고 생각했다. 그 후 우리는 10월도 일찍 여는 것이고 내년 5월에 개최하자고 했다. 현재 보기에는 내년 5월도 일찍 개최하는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 몇 개월이나 몇 년을 미룰 수 있다. 아시아 형제당들이 모두 12월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12월 회의 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다. 또한 마오쩌둥은 알바니아당은 절대로 12월 준비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당은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중국은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다. 마오쩌둥은 우리가 이 두 당의 태도를 증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사오치 동지는 김일성에게 루마니아당은 올해 두 번 중국을 방문했고 했다. 첫 번째는 3월이었고, 이때 조선도 방문했다. 두 번째는 10월이었고, 마우러 (Ion Gheorghe Maurer, 국민회의대표, 국무위원회 제1부주석)는 대표단을 이끌고 왔는

데 그의 태도는 단호하고 절대로 흐루시초프가 여는 분열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우리는 강경파라서 소련이 12월 회의를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12월 15일에 제 시간에 회의를 열면 좋겠고,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들이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회의를 미루든지 안 미루든지 이 회의는 소련의 함정이라서 우리는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우리도 반대하고 북한도 반대하고 베트남, 루마니아, 알바니아, 인도네시아와 일본당도 다 반대할 것이다. 최소 7개의 당이 반대할 것이고, 그 중 5개의 당은 사회주의 국가의 집권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우리는 이미 12월 회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마오쩌둥도 우리의 방침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흐루시초프처럼 신용없이 말하면 안된다. 김일성은 우리가 중국동지가 잠시 공개논쟁을 중단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같다. 우리는 현재 대대적으로 소련신지도자를 반대하면 (그들은) 인심을 얻지 못 할 것이다. 만약에 소련신지도자가 1963년7월 ‘공개서신’와 같은 것을 발표하거나 소련공산당 중앙이 올해 2월 전회(全会) 처럼 공개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나 보고를 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반격할 것이다. 전쟁처럼 두 개의 전투 사이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도 잠시 멈춰야 할 것 같다. 그들의 내부는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형제당들이 소련신지도자의 변화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류샤오치는 ‘그들이 내부에서 아직도 논쟁하고 있고 명확한 방침도 없고 소련 국내하고 동유럽 각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신지도자에 대한 공개논쟁을 잠시 멈추지만 그들이 아직도 2월 중앙전회의 보고와 결의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그들을 비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우언라이는 우리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에 참가했을 때는 몇 명의 소련원수를 만났다고 했다. 그들 중에 소코로브스키 원수(Sokolovski, Vasili Danilovich)는 중국의 첫 번째 원자탄은 잘 폭발했고, 몇 개 더 폭발하면 더 좋다고 말했다. 저우언라이는 소코로브스키에게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말하자, 소코로보스키는 중국이 미사일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저우언라이는 이로써 소련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은 현재 몇 가지 점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10월 혁명제를 경축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대표단을 파견해서 우호와 단결하고 싶은 마음을 표시했다. 두 번째, 잠시 소련신지도자를 비평하는 문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당이 쓴 흐루시초프의 사임에 대한 문장을 발표하려고 한다. 세 번째, 12월 회의 열기 전에 소련신지도자의 행동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네 번째, 12월 회의에 대한 방침을 바꾸지 않고 단호히 여는 것을 저지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의견이 흐루시초프 사임 후에 중국공

산당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 대한 방침을 반영했다. 김일성은 이런 태도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상의 4가지 의견은 우리당의 흐루시초프가 실각 이후 중소관계 방침에 반영되었다.<sup>41</sup>

우렁시의 회고록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상당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이 회담을 끝으로 1969년까지 북중관계는 긴장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김일성은 중국지도부와의 만남을 꺼려했고, 북한의 2인자인 최용건이 주로 중국지도부와 회담하였다.

#### 4. 브레즈네프 초기의 북한·소련의 전략적 접근

1962년 가을부터 1964년 10월간 북한과 소련의 양국간 정부대표단의 방문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1964년 말, 북한과 소련은 통상협상체결을 체결하였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북한이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과 ‘분열책동’ 비판 등에 맞추었던 초점을 1964년 말부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과 수정주의, 교조주의 동시 비판으로 옮겨갔으며 소련에 대한 비판도 자제하였다.<sup>42</sup> 12월 3일, 노동신문에는 오히려 중국의 교조주의 노선 추종 압력에 대한 간접 비난 사설이 게재되었다. 북한외교의 변화와 중국의 교조주의적 노선이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2월 미국은 북베트남 폭격을 개시하였고,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파병되었고, 6월에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변화 상황에서 소련의 원조는 북한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중국정부는 2월에 ‘전세계는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를 지지하라’를 발표하였으나, 중국은 이러한 혁명적 수사와는 달리 베트남전에서 적극적으로 하노이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분쟁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호치민의 노력으로 모스크바와 갈등 관계를 겪었으나, 베트남전쟁의 확산 이후 베트남-소련관계는 개선되었다.

1965년 2월 코시킨(K. Kosygin) 내각 수상은 하노이, 북경, 평양의 방문을 방문하여 관계개선과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베트남-소련, 북한-소련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코시킨과 마오쩌둥의 회담을 하였으나, 마오쩌둥은 중소화해는 무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코시킨 등의 화해노력은 결렬되었다. 소련은 1965년 미국에 의하여 확산된 월남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련, 중국, 북한, 북베트남 지도자들이 회합을 갖고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의했으나, 중국지도부는 소련공산당의 ‘수정주의적 자세’를 구실로 거부했다.<sup>43</sup> 코시킨 내각수상, 쉘레핀 내각부수상 등의 소련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은 소련과의 공개논쟁을 자제하고, 북한의 선전매체에서도 소련의 입장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sup>41</sup> 吳冷四 『앞의 책』, 883-888쪽.

<sup>42</sup>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년), 14쪽.

<sup>43</sup> 김창순 편 『북한의외교론』 (북한연구소, 1978), 112-113쪽.

3월에서 4월초 소련공산당 제 23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북한은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동시에 모스크바에 개최된 세계공산당협의회에 중국과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3월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하였다. 마오쩌둥은 최용건과 베트남, 인도네시아공산당 대표 등에게 아시아 혁명을 지도하며, 최용건에게 “남조선인민이 게릴라 투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지도를 최용건에게 보고를 받은 김일성은 “남조선은 해안선이 많고, 산이 벌거벗었으며, 교통도 발달했고, 더욱이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게릴라 활동이 어렵다”고 거부하였다.<sup>44</sup> 3월에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석유에 관하여 교섭하였고, 문화과학교류협정을 조인되었다. 5월 15일, 중국은 제 2차 핵실험에 성공했으나, 1965년 5월말, 대독전 기념일에 즈음하여 소련에 파견된 최광은 5월 31일에는 소련과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sup>45</sup>

8월 15일 조선해방 20주년 기념식에 파견된 중국과 소련의 사절단의 구성은 관찰하면, 북중 - 북소간의 관계의 변화를 나타냈다. 평양에서 거행된 기념식에 소련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겸 비서이자 내각 부수상인 쉘레펜을 단장한 사절단이 파견된 데 비하여,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무신우를 단장으로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양측 대표단의 무게의 차이는 북소간의 접근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중국의 베트남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관련하여 소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였다. 11월 10일에서 11일, 이주연 부수상은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국제정세(중소분쟁)에 대하여 4차례의 회담을 가졌다.<sup>46</sup> 저우언라이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부수상을 상대로 4차례의 긴 회담을 통하여 중소분쟁에 대하여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려고 하였다.<sup>47</sup>

1966년 2월 북한과 소련은 장기경제기술협정(1966년-70년)을 체결하였고, 3월 31일 로동신문은 브레즈네프가 소련공산당 23차 대회에서 한 연설을 발췌해서 대서특필하였다. 이 기사는 브레즈네프가 “소련은 중국과 친선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한 말을 실고 있다.<sup>48</sup>

5월 소련 연방의 총서기인 브레즈네프(Leonid I. Brezhnev)가 연해주에 레닌

<sup>44</sup> 이종석(2000) 『앞의 책』, 240쪽. 마오쩌둥은 1965년 3월 김일성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일성은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경화된 마오쩌둥을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이종석은 평가한다.

<sup>45</sup> 김창순 편 『앞의 책』, 114쪽.

<sup>46</sup> 『周恩来年谱1949-1976(中)』, 763쪽.

<sup>47</sup> 이종석의 주장에 의하면 김일성은 자신과 막역한 사이인 저우언라이와 직접 의견대립이 노출되는 회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상을 북경에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회담이 북중의 의견 차이가 타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열렸음을 의미한다.

<sup>48</sup> 이종석(2000) 『앞의 책』, 242쪽.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다. 이 때 김일성은 블라디보스톡의 중심지에서 19km떨어진 변화가에서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련연방의 군사력을 북한 정부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브레즈네프는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소련 지도층은 김일성의 방문과 방문의 주요 목적을 비밀에 부쳤다. 모스크바는 북한에 보다 많은 경제적 원조를 해줄 것에 대하여 합의했다. 비록 비공식적인 회담이었지만, 북소 협력을 한층 높였다.<sup>49</sup> 그리고 6월에 '1967-1970년도 상품 호상납입에 관한 협정과 어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했으며,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1967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김일 등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조인하였다. 11월에 최용건이 러시아혁명 5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였다.<sup>50</sup> 이로써 북중갈등에 따른 원조감소를 북소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었다. 3월 북한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소련, 북한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평양-모스크바간의 이러한 경제 및 군사관계의 긴밀화에 따라 소련의 대북한 경제, 군사원조 감독을 위하여 10월 '조, 소 경제, 과학, 기술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 설치 협정' 조인이 이루어지고, 이를 집행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8년 5월 14일에서 19일까지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엔. 웨. 뵘드고르노이 위원장이 북한을 친선 방문하여 연합공보가 발표되었다. 북한이 소련의 대베트남 정책을 지지하면서,<sup>51</sup> 중국은 몽고, 베트남과 조선 국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압박을 받는 형세가 되었다. 1969년에도 북소 간에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었고, 1969년 12월에는 박성철 부수상 겸 외무상이 소련을 방문하였다.<sup>52</sup>

구동독의 정보보고서에 이 시기의 북한, 중국, 소련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중국은 조선에 대하여 소련과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 시기 군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이탈해서, 소련권역에 편입되었다.<sup>53</sup>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무역도 미미했다. 1968년 북중 간의 무역에 대한 협정이 조인되기는 했지만, 중국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중국은 공급을 약속한 물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크스와 코크스석탄과 같은 전략물자는 약속한 양의 50%를 중국이 조선에 공급했다. 소련

<sup>49</sup> 라리사 자브로우스카야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의 안보」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저, 박명서, 정지웅 옮김 『북한 핵 프로그램』 (서울: 사군자, 2000년 5월), 273쪽.

<sup>50</sup> 서대숙 『앞의 책』, 105-106쪽.

<sup>51</sup>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和蘇聯社會主義共和國聯盟之間的聯合公報」 (平壤: 1969年5月19日) .

<sup>52</sup>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年), 413-414쪽.

<sup>53</sup> 평양주재무관 「49 03 01 북한의 군사정치학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평양: 1967년 9월 27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204-213쪽.

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의 부족을 모두 채울 수는 없어서 조선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는 전혀 접촉도 없고, 사절단 교환도 없었다.<sup>54</sup> 북중갈등에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코크스 및 코크스탄이 불규칙하게 공급됨으로써 1968년 상반기에 북한의 흑색합금 공업의 코크스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소련으로부터 투입된 공급물량으로도 손실을 다 메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68년 하반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코크스 및 코크스탄 공급이 규칙적으로 도착하였다.”<sup>55</sup> 1968년, 북한 건국 20주년에도 사절단 교환없이 천이가 조선대사관의 경축행사에만 참석했다.<sup>56</sup>

---

<sup>54</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독일민주공화국 「1968년 3월 23일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협의에 관한 메모(11시 - 14시 40분)」(평양: 1968년 3월 27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228-232쪽.

<sup>55</sup> 야르크(1등 서기관) 「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평양: 1969년 2월 6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239쪽.

<sup>56</sup> 「陈毅副总理在朝鲜临时代办金在淑举行的庆祝朝鲜国庆20周年招待会上的讲话」(1968년 9월 9일)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 1766-1767쪽.

#### IV. 문화대혁명 초기의 북한과 중국의 갈등

##### 1. 홍위병의 김일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북중관계의 악화

1966년 마오쩌둥의 지도하에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홍위병들은 ‘사령부를 공격하라’는 주제하에 공산당의 조직과 정책을 공격하도록 선동되었다. 문화대혁명은 새로운 사회주의 모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나, 곧 내전과 유사한 전면적인 무력투쟁으로 확산되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1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5일에는 마오쩌둥의 대자보 ‘사령부를 포격하라’, 8일에는 ‘중공중앙 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의 관한 결정’(16조)이 각각 발표되었다. 중국은 혁명외교를 전개하여 1966년부터 1967년에 중국과 국교관계가 있던 48개국 중 30개국과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당국은 주중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계의 등급을 낮추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사회주의-공산주의 당, 정, 사회 등의 연대는 붕괴되었다. 소련과 중국은 몽고, 베트남을 둘러싸고 갈등은 증폭되어 군사적 행동까지 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와는 적대화되었다.<sup>57</sup>

문화대혁명의 지도자들과 홍위병들은 1965년부터 북한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로 몰아붙였다.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비계덩어리 수정주의자, 흐루시초프의 앞잡이’라고 비판하며 몰아붙였다. 그들은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하여 북한을 ‘기회주의’, ‘중간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무원칙한 타협의 길’을 선택하고 있으며 ‘두 결상 사이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지도부는 베트남전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던 일본공산당도 공개적으로 공격했다.<sup>58</sup> 1967년 홍위병들은 대자보에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매도하였다. 김광협이 그런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느니, 또 다른 장성이 김일성을 체포했다느니 하는 일련의 낭설을 써 붙였다. 홍위병들은 남조선이 남베트남을 돕고 있는데, 북한은 북베트남을 돕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선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이러한 독설은 점점 심해져서 광저우에서 출판된 문혁통순(文革通訊)은 김일성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며 인신 공격을 하였다.<sup>59</sup> 홍위병들은 북한과의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주덕해 등의 재중조선인 지도자들을 매국노로 비판하였다.

홍위병의 김일성 공격과 북한의 반발에 따라서 양당·양국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1966년 10월 제 229회 판문점 정전회담에 중국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고, 10월부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간에 기사교환도

<sup>57</sup> 下斗米伸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53-154쪽.

<sup>58</sup> 下斗米伸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53-154쪽.

<sup>59</sup> 서대숙 『앞의 책』, 106-107쪽.

중지되었다.<sup>60</sup> 1967년 북한은 주조선중국대사를 추방하고 주중대사를 소환하여, 임시대리대사가 행정처리를 하게 되었다. 북중국경에서는 상호 가두행진 선전차를 이용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상호 비방하였다. 이 시기 국경마을의 주민들은 양국의 상호 비방 방송에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김일성 주석이야말로 세계의 태양이다’라고 홍위병의 마오쩌둥 찬양문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선전하였다. 또한 북한은 수공작전이라고 하여, 두만강 한 가운데에 방파제를 만들어 중국 서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조치하여 중국측 논밭과 농가가 침수당하였다. 회령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에서는 지원군 묘가 훼손되고, 주위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이에 대하여 저우언라이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항의했다. 홍위병들은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났다는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북한을 자극하였다.<sup>61</sup> 1968년 12월과 1969년 북중 국경에서는 총격전이 발생하였다.

북한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홍위병들의 김일성 공격에 따라서 북한인들의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혐오감은 심해졌다. 북한 당국이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중국식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동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sup>62</sup>

황장엽의 회고록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권력투쟁적 측면에서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좌경노선과 내부 정치권력투쟁이 혼합된 형태이다. 1960년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81개국 공산당, 로동당 회의 이후에도 중국과 소련의 노선논쟁과 갈등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등의 실권파들은 소련과의 화해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화했다. 덩샤오핑은 당 총비서를, 류샤오치는 국가주석으로 있었고, 마오쩌둥은 당 주석과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최고권력은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조직적 권력은 실권파가 장악하고 있는 형태였다. 마오쩌둥은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들을 직접 선동했다. 수정주의에 맞서 계급투쟁과 문화혁명에 나서라는 마오쩌둥의 선동에 화답한 것은 홍위병이었다. 마오쩌둥은 사인방을 중심으로 한 상해파를 앞세워 실권파를 공격했다.”<sup>63</sup> 그러므로 홍위병의 김일성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마오쩌둥의 김일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인식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1956년과 같이 다시 한번 마오쩌둥이 북한 내정간섭을 시도하려 한다고 인식했다.

## 2. 북한의 ‘자주성을 옹호하자’

7월 13일 로동신문에는 ‘국제사회의 좌우의 기회주의에 대하여 몇 가지 비판

<sup>60</sup> 堀田幸裕 「앞의 논문」, 4-6쪽.

<sup>61</sup> 歐陽善著, 富坂聡編 『앞의 책』의 제2장에는 냉전시기의 북한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소개가 있다. 이종석(1995) 『앞의 책』, 80-82쪽.

<sup>62</sup> H씨의 증언(2008년 1월 17일-18일, 전주).

<sup>63</sup> 황장엽(2006) 『앞의 책』, 174-175쪽.

논설'이 게재되었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좌'우의 기회주의와의 투쟁 중에서 발 전해왔다.“수정주의 문제는 오직 미제의 월남 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중국의 태도를 편협 한 교조주의적 행태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은 '자 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논설을 실어 중국공산당의 교조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주 체노선을 분명히 했다. 1966년 9월 15일 로동신문은 트로츠키즘 비판이라는 형태 로 문화대혁명의 폭력주의를 비판하였다.”<sup>64</sup> 북한은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 모두와 거리를 두면서 주선노선을 선택했다. 직접 적인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수정주의는 소련을, 교조주의는 중국을 거론하는 것이다.

1966년 10월 5일에서 12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 대회가 개 최되었다. 이 대회의 공식적인 목표는 국내 정치적 발전, 특히 조선의 경제적 발전 을 위한 앞으로의 과업을 확정하고, 남한의 상황을 논의하며, 공산주의 세계 운동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조선 로동당 규약에 의하면 원래 제5차 당 대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다른 국가의 공산당, 사회당을 초청하지 않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즉 내부회의 를 진행하였다.

10월 5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용건(서열 2위)은 다음과 같이 개회사에서 연설했다.“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복잡하다……(중략)……사회주의 진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의 의견이 달라서,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에 단결된 힘으로 대처할 수 없다.”

북한 혁명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공산주의 운 동에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각국 공산당과 로동당이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혁명운동의 발전에 장애를 줄 뿐 아니라, 북한 혁명과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즉 조선로동당 제 2차 대표자대회는 본질적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국내외 문제의 토론의 장이었다는 것이다.<sup>65</sup>

그리고 김일성은 대표자 대회에서 '현 정세와 우리 당의 임무'라는 보고를 하면 서, 중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오늘 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는 자신의 견해와 로선을 다른 당에 강요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고, 내 부문제를 간섭하려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공산당에 대하여 일부 형제당의 내정간섭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형제당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당 내 의 반당분파분자를 지지하고, 당 내부를 혼란시켜, 다른 나라의 민주운동을 분열시 켜서는 안 된다……(중략)우리들은 이후에 어떠한 내정간섭에도 반대하고, 대국주의 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sup>64</sup> 황장엽(2006) 『앞의 책』, 175쪽.

<sup>65</sup> 堀田幸裕 「앞의 논문」, 3쪽.

복잡한 정세는 중소분쟁과 문화대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일성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모두 반대하였다.<sup>66</sup> 10월 14일, 대표자 대회에 대하여 로동신문에는 ‘당이 지시하는 승리의 길에 한층 힘을 넣어 전진하자’가 게재되었다.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인용했다. “베트남 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의 입장과 기회주의적 입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 이기주의를 구분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들은 기회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고, 단결을 위해서라고 하며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sup>67</sup>

조선로동당 대표자 대회에 대하여 황장엽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10월 5일 제2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의 조선로동당과 일본공산당에의 간섭을 비판하였다. 현대 수정주의보다 좌익 기회주의가 더욱 위험하다고 중국을 비난하였다. 이때 소련과 중국의 잘못된 노선을 반대하는 로동당의 주체적 노선을 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련의 ‘우경 수정주의’와 중국의 ‘좌경 모험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자주적인 혁명노선을 견지한다는 주체를 더욱 강조했다.”<sup>68</sup>

제2차 로동당대표자 대회직후 1966년 10월 12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당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구동독 정보보고서에서 제 14차 전원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체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설정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혁명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위하여 북베트남의 남베트남에 대한 공세를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중도주의적이고 타협주의적인 입장을 주장하였다. 로동당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소련공산당과도, 중국공산당과도 거리를 두었다. 로동당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동시에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공개적인 논쟁은 소련공산당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로동당은 중도주의 및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루마니아공산당, 쿠바공산당, 일본공산당, 베트남로동당 등과 입장이 비슷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의 직후, 10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제 4기 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회의에서의 결의 사항을 확인하고, 로동당을 재조직하였다. 친중 인사인 김창만과 김일성대학 총장 하양천은 당 지도위원회에 선출되지 않았다.”<sup>69</sup>

<sup>66</sup> 堀田幸裕 「앞의 논문」, 3-4쪽.

<sup>67</sup> 堀田幸裕 「앞의 논문」, 4쪽.

<sup>68</sup> 황장엽(2006) 『앞의 책』, 175쪽.

<sup>69</sup> 「비밀문건 K? /ka 조선노동당 대표자대회(1966년 5일 - 12일)에 대한 정보」(베를린: 1966년 12월 7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182-188쪽.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북중관계는 악화되기도 했지만, 북한은 문화대혁명을 이용하기도 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혁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주장하면서 혁명노선을 견지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공산진영은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는데, 북한은 베트남의 혁명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사지원을 하였다. 당시 소련은 베트남에 중국군이 참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소련과 중국은 미국과의 베트남에서 대결을 회피하고 있었다. 문화대혁명과 중소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북한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국방예산도 급격히 증가시켰다.

1967년 1월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비난 공격하였고, 북한 내부에 정변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대자보를 통해 유포했다. 문혁파도 김일성을 부르주아 수정주의자라고 했고, 김일성도 로동당회의에서 중국을 극좌라고 비난했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 측이 1956년과 같이 북한 지도부의 경질을 생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sup>70</sup> 베트남전의 확전과 남북대치 때문에 긴장되어 있던 북한에 대한 홍위병의 악의적 비난은 북한 지도부를 긴장하게 하였다. 당시 북한과 중국에서 ‘수정주의자’란 곧 ‘적’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수정주의자라고 규정한 것은 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67년 1월 26일 북한 지도부는 해명 성명을 발표하면서 홍위병이 ‘정변’의 진원지로 유포한 인민군에 대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월 28일 로동신문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sup>71</sup> 1967년 1월 20일, 홍위병의 대자보에는 김광협(내각부수상,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서열 6위)이 최용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서열 2위)을 구속했다고 나왔다. 그러나 1월 22일, 로동신문에는 김광협이 김일성 등의 당 간부와 같이 연극을 관람하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중국에서 북한에 정변이 일어났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자보에 의한 북한 관련 유언비어의 유포는 지속되었다. 서방측은 중국의 반복활동을 이용하였고, 이에 일본, 쿠바 등의 공산당은 중국의 유언비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72</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1967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비밀리에 개최되었고, 그 회의의 안건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개월도 채 못되어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집된 중앙위원회 제16차 전원회의도 비밀리에 개최되어 안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일 년에 두 차례 6개월 간격으로 열리는 것이 관례였지만, 제15차 회의와 제16차 회의는 안건도 발표되지 않고, 비밀회의로 연달아 열렸다. 이는 제 15차, 16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내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 결정했다는 의미이다.

<sup>70</sup> 下斗米伸夫저,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48쪽.

<sup>71</sup> 이종석(1995) 『앞의 책』, 80-82쪽.

<sup>72</sup> 堀田幸裕 「앞의 논문」, 5쪽.

김일성은 1967년 5월 25일 ‘5·25교시’를 지시했는데, 황장엽에 의하면 “문제는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이론 투쟁이었는데,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문제들이었다. 특히, 더욱 계급주의적인 입장에서 독재를 강화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심화시키려는 통치집단의 요구와, 계급투쟁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인텔리 사이의 대립이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우경 수정주의와 중국의 좌경 모험주의를 모두 반대하면서 중간입장을 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모방했다”라고 한다.<sup>73</sup> 1956년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투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5·25교시를 중심으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강화되고, ‘인텔리의 혁명화’의 구호 아래 인텔리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 전인민이 김일성 휘장(배지)을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sup>74</sup>

서대숙은 ‘갑산파 숙청 등은 당내의 권력투쟁이라기 보다는 중소분쟁이나 북한 경제문제, 남한의 반공정책 등의 문제 때문에 숙청되었고, 또한 김일성의 1967년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숙청되었다’라고 한다. 특히 홍위병은 김광협 등의 군대를 동원하여 김일성을 제거했다는 대자보를 붙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김광협은 1967년 12월 내각부수상에 재임했지만, 1968년에 숙청되었다.<sup>75</sup>

문화대혁명시기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14차, 15차, 16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권력 구도는 김일성 시대에 줄곧 유지되었다. 1967년 6월 28일, 로동당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는 유일사상체계확립이 공식화되었고, 이후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은 본격화되었다. 문화대혁명시기 북한은 마오쩌둥의 개인숭배와 중국의 좌경화를 비판하면서도, 북한 역시 문화대혁명과 닮은 혁명화, 갑산파숙청, 그리고 유일사상체계 확립 등을 진행하였다.

<sup>73</sup> 황장엽(2006) 『앞의 책』, 179쪽.

<sup>74</sup> 황장엽(2006) 『앞의 책』, 179쪽.

<sup>75</sup> 堀田幸裕 「앞의 논문」, 5쪽.

## V. 결론

한반도와 중국대륙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였고, 항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선·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피로 맺은 전우애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북중의 양국·양당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민족모순으로 인하여 협력과 긴장이 병존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중과사건을 둘러싸고 중국지도부는 북한의 내부 권력투쟁에 간섭하였지만, 중소분쟁을 배경으로 개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중소분쟁을 배경으로 북한은 1961년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체결 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동맹조약체결 직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둘러싼 북한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1960년 초반은 북중관계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시기였다.

1964년 10월의 브레즈네프 신지도부의 등장 이후, 북중 양당은 11월 러시아 혁명기념행사에의 문제를 포함하여 소련정세에 대하여 매우 긴밀하게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김일성도 중국지도부의 대소강경노선에 동조했다. 그러나 1964년 말부터 북한과 소련은 상호 접근하면서 김일성은 중국측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브레즈네프의 신지도부의 등장의 문제보다는 1964년 11월 러시아혁명에서의 마리노프스키의 발언으로 인한 중소분쟁의 격화, 베트남전의 확전과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과 소련은 상호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에서 ‘긴장’이 가장 고조된 시기이다. 1966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은 본격화면서 홍위병들은 북한의 수정주의적 태도를 빌미로 북한과 김일성 격하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로동신문에 ‘주체성을 옹호하자’는 사설에서 좌경모험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대회에서 김일성은 중국의 좌경모험주의를 반대하였다. 홍위병들은 대자보를 통하여 김일성에 대한 정변(쿠데타)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에 대응하여 북한에서는 자주노선을 강화하며 중국 문화대혁명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에 편승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 14기, 15기, 16기 전원회의를 통하여 갑산파를 숙청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지시에 의하여 1967년 5월부터는 지식인 사회에서 ‘인텔리의 혁명화’ 즉 소(小)문화혁명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던 군사적, 경제적 원조가 급감한 반면에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수혜받으면서 북소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북소관계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통한 관계회복의 근원에는 문화대혁명 초기에 북한과 소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동맹관계는 ‘적과 동지, 정치적 가치, 경제체제 등의 면에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며 그 국가들은 서로 우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1960

년 중후반의 북중관계는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시작하여 국가이익으로까지 긴장의 확장되었다.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달성되었지만,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문화대혁명 시기의 북중혈맹은 갈등에서 협력을 달성하였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긴장된 상태로써 적대적 상태가 지속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중국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교조주의적 태도와 문화대혁명은 긴장을 유발하는 원천이 되었다. 1961년 우호조약에 따른 북중동맹이 형성되어, 북한의 경우는 동맹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여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국의 목적은 동서냉전과 중소분쟁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북중동맹은 동맹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른 ‘긴장된 동맹(The Strained Alliance)’ 혹은 ‘적대적 동맹(The Alliance despite Antagonism)’이었다.

<참고문헌>

회고록, 연보, 연감 등의 기초자료

-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신, 2006년).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년).
- 吴冷四 『十年论战1956-1966中苏关系回忆录』 (中央文献出版社, 1999년).
- 김일성 「중국인항일투쟁연고자와 한 담화(1994년 5월 7일과 5월 30일)」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和蘇聯社會主義共和國聯盟之間的聯合公報」 (平壤: 1969年5月19日) .
-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년).
- 통일연구원편집부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도서출판선인, 2006),
- 야르크(1등 서기관) 「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 (평양: 1969년 2월 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독일민주공화국 「1968년 3월 23일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협의에 관한 메모(11시 - 14시 40분)」 (평양: 1968년 3월 27일),
- 평양주재무관 「49 03 01 북한의 군사정치학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평양: 1967년 9월 27일),
- 「비밀문건 K? /ka 조선노동당 대표자대회(1966년 5일 - 12일)에 대한 정보」 (베를린: 1966년 12월 7일),
- 국제교류과 「B805/219 조선노동당 사절단과의 대담을 위한 참조사항」 (베를린: 1966년 12월),
- 『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年) ,
- 「陈毅副总理在朝鲜临时代办金在淑举行的庆祝朝鲜国庆20周年招待会上的讲话」 (1968년 9월 9일)
- 歐陽善著, 富坂聡編 『対北朝鮮・中国機密ファイル』 (동경: 文芸春秋, 2007년09월) .
- H씨의 증언(2008년 1월 17일-18일, 전주).
- 『贺龙年谱』 (北京: 人民出版社, 1996年) .
- 『周恩来年谱1949-1976』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7年).
- 『북한총람1945-1982』 (북한연구소, 1994년).

연구논문 및 연구서

- 王泰平主編『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三卷）：1970-1978』（北京：世界知識出版社，1999年）.
- 下斗米伸夫『アジア冷戦史』（東京：中央公論新社、2004년 9월）.
- 平岩俊司『北朝鮮・中国關係の歴史的変遷とその構造』（慶応義塾大学博士論文、1999）.
- 堀田幸裕「文化大革命初期に発生した中朝關係の悪化について（1966-1970年を中心に）」『中国研究月報 No.658』（中国研究所、2002年）.
- 박종철『演变中的中朝关系研究：走出血盟（1953年-1994年）』（北京：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2007年4月）.
- 박종철 「순망치한의 혈맹: 중국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31집』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년 12월).
- 박종철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서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연구」 『군사사연구총서 제 5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년 3월).
- 歐陽善著, 富坂聡編『対北朝鮮・中国機密ファイル』（동경: 文芸春秋, 2007년09월）.
- 이종석『조선노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년).
-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5).
- 정창현『북한현대사』 (민연, 2002년),
- 투가리노프 소련외교부 극동국장「조선 정세 보고서」
- 이종석『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년).
- 남찬순『북미 핵협상과 동북아 질서 1990년대의 교훈』 (과주: 나남출판, 2007년).
- 서대숙『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년).
- 이종석『조선노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년).
- 이종석『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년).
-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년).
- 김창순 편『북한외교론』 (북한연구소, 1978년).
- 라리사 자브로우스카야「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의 안보」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저, 박명서, 정지웅 옮김 『북한 핵 프로그램』 (서울: 사군자, 2000년 5월).